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영원한 인자 성경: 시편 103편 17-22절

Tag: 삼위일체 하나님 >Trine God

17 여호와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18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19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20 능력이 있어 여호와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2 여호와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103:1-22)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 그 인자도 영원하시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자에게 그 인자가 영원하시다 하지 않으셨다. 모든 자에게 인자하시지만, 모든 자에게 영원하지는 않으시다.

누구에게 그 인자가 영원하신가?

누구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살아간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만 그 인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하직하는 순간부터 더 하나님의 인자가 절실하게 필요해진다.

그러면 이 절실한 순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가?

대부분의 인생에게 하나님의 인자는 마지막 순간이 이제 인자는 여기까지. 이제 인자의 시간은 끝나고 심판의 시간이다 하실 때가 온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실까?

그 전에 우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인자를 사람들에게 베푸시는지를 알아보자.

3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4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5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느도다

이 모든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린다.

인생은 어느 순간 잭팟이 터지기도 하지 않는가?

4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한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다.

8 여호와와는 ① 긍휼이 많으시고 ② 은혜로우시며 ③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④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경건한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는 보너스가 있다.

9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10 우리의 죄(罪)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심; 실수는 봐 주신다. 한 두 번은 모른척 하

신다는 뜻. 모르지 않으신데, 그런 척 하신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노하시긴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지신다.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약점이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순간 순간 간섭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경우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신다. 죄 값은 큰데 벌은 작다는 뜻이다. 두세번 벌을 주어야 하는데 한번만 주신다는 뜻이다.

-이걸 우리는 잘 계산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한번 매를 맞고 너무 아프다고 영영 운다. 어린아이들은 그렇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한 대 맞고 이 벌이 죄에 비해 약한 벌이라는 것을 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벌은 최소한의 아픔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논(ἄν) 불법, 법과 질서가 없는 것. 오래 습관화 된 죄, 지역이나 집안에서 오래도록 내려오는 죄, 마땅하지 않아서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죄.

*체트(χρη) 의도적으로 다른 표적을 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인줄 알면서 이번만, 이번만 하면서 습관화 된 죄.

-습관적인 질병은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터지고 크게 곤혹을 치르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다. 따끔하게 혼이 나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나 이런 복은 아무나 받는게 아니고, 오직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이다. 13절.

13 아버지가 자식을 공혹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공혹히 여기시나니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다.

14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

하심이로다

-우리는 체질적으로 죄의 유혹에 약하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죄악을 물리치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죄를 향해서 달려 나가려는게 인간이다.

-그러나 그 길은 위험한 길이요, 의도적으로 쳐놓은 그물이다. 나는 결코 빠지지 않으리라고 장담하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걸려 넘어진다.

-넘어짐의 아픔은 쓰다. 그 결과로 인한 손해는 막심하다. 몇 년을 두고 갚아야 할 만큼 고생스럽다. (깡통 전세)

-핑계는 수 만가지다. 내가 이정도도 못한다면 살아서 무엇하리.

-매달 푼돈 5만원씩 2년만 갚으면 돼.

-그런데 매번 TV쇼핑몰에서 3개월 무이자로 물건 구입한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엇을 구매 했는지도 잊어버린다.

-창고에는 내가 구입했으나 한번도 사용하지 않는 물건도 있다.

-보험도 가입한다. 매달 푼돈이 나가나 몇 년이 지나면 100만원 가까이 나간다. 해지하면 손해나는 보험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소한 실수를 철저히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망가지는 인생은 거의 대부분 사소한 실수들이 쌓여서 망가진다.

17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 하심이 한정된 기간이 아닌, 영원하게 자자손손 임하는 비결이 여기 소개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것, 두려워 하는 것. 조심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를 억이 용하지 않고 공경하며 섬기는 것. 마치 아이가 아버지에게 대하듯 하는 것을 말한다.

-떨망하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반항, 불순종, 자기 의로 가득한 자들이다. 이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기 보다는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외치는 자들이다. (이재명스러운 자들.)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자. 어떻게? 내가 숭선 수범 하는 것이 정답이다.

18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
다

-잊지 말자 하나님의 계명.

19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

-관리나 세리는 속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은 목사들, 가르치는 자들, 관리들 권력자들에게 더 혹독하게 심판 하신다.

-함부로 정치인이 되는 자들은 혹독한 고난을 면치 못한다.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한 자들, 죄악과 싸워 이긴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감사의 찬가, 승리의 찬가, 영광의 찬가다.

20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21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
축하라

22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이다. 다윗의 찬양에 대한 신앙고백이 바로 우리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기도;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특히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참회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뉘우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단지 먼지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 주소서.

우리를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